

2024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윤창진의 1980-90년대 작업에서 나타나는 건축사진의 활용방식에 대한 연구

An Study on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Architectural Photography in Yoon Chang-jin's works during the 1980s and 1990s

○유 승 호* 엄 운 진**
Yoo, Seung-Ho Um, Woon-Jin

Abstrac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useum of Urban Architectu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research and archiving of various fields associated with architecture. While architectural photography has traditionally been confined to documenting models created by architects and completed buildings, contemporary architectural photography is expanding its scope into artistic and commercial domai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ork of architectural photographer Yoon Chang-jin, who was primarily active in the 1980s and 1990s, to explore how the field of architectural photography has evolved beyond capturing models and buildings to encompass the methods used in contemporary architectural competitions. Additionally, it aims to examine how the medium-specific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photography have shaped a distinctiveness within the architectural industry amidst the technological transition from analog to digital.

키워드 : 건축사진, 윤창진, 미디어, 매체활용, 건축공모전

Keywords : Architectural Photography, Changjin Yoon, Media, Architectural Competit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과 함께 건축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연구와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사진 분야는 건축가가 제작한 모형과 완공된 건축물의 기록 등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 왔으나, 현대 건축사진은 예술적, 상업적 분야 등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9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건축사진작가 윤창진의 작업을 통해 건축사진의 영역이 건축 모형과 건축물의 촬영 및 기록에서 벗어나서, 동시대의 건축공모전에서 활용된 방식을 탐구한다. 이와함께, 건축사진이 지니고 있는 매체적 특성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기술전환의 시대에 건축산업에서 어떤 특수성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윤창진 작가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필름, 사진, 패널 등을 기반으로 윤창진 건축사진 작업의 특징,

작업의 변천과정, 매체의 복합적 활용 등을 파악하였다. 오랫동안 함께 작업을 함께 했던 건축가 조성룡, 건축사진작가 김재경, 부인 이옥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축계의 시대적 특성, 윤창진 작가의 작업방식 및 특수성, 기술변화에 따른 건축사진의 활용방식 변화 등을 확인하였다.

2.2 윤창진 작가의 생애

윤창진 작가는 1945년 서울생으로 1963년 인하대 건축과에 입학해서 건축과 수업을 들으며 인하대학교 신문사 사진기자로 활동하며 사진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다. 대학교 졸업 후 건축분야가 아닌 사진작가로서의 작품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77년 부터 ‘덕수양행’이라는 상호명으로 사진작업실을 운영하였다. 인물과 광고사진을 주로 하던 윤창진 작가는 대학교 동기였던 건축가 서진우의 권유로 건축사진 영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월간 ‘건축문화’의 사진기자로 근무하였다. 1985년부터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미래포토’ 상호명으로 건축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조성룡, 김영섭, 전은배, 김종규 등 아뜰리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가부터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삼우설계 등 대형 설계사무실의 건축현상설계 모형, 완공 건축물의 촬영 등을 주로 작업하였다. 당시 건축사진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정정웅, 김태오, 김재경, 박영채, 채수옥, 엄승훈 등과 교류하면서, ‘건축사진’이 건축분야의 전문영역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던 윤창진은 2005년 이후 병환이 깊어지면서 작

*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대표

**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2023년도 건축공간연구원의 과제로 진행된 ‘윤창진 자료 아카이브 구축 기초조사’ 연구의 결과 중 일부를 보완 발전 하였습니다.

품활동이 어려워졌으며, 2013년 타계하였다.

3. 1980-90년대 윤창진 작가의 건축사진 활용방식

3.1 1980-90년대 건축계의 특성

1980-90년대는 현재 건축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AD, CGI (Computer Graphic Image) 등 건축도면 및 건축이미지 제작방식 뿐 아니라 Word, Photoshop, Illustrate, Powerpoint 등 문서, 이미지 제작 및 편집, 발표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건축계에 도입되기 이전이었다. 이 시기에는 건축설계작품의 정확한 형태와 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축공모전 및 각종 건축-도시프로젝트의 심의에서 건축모형의 제출, 건축모형 사진을 활용한 투시도 제작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었다. 건축패널의 제작은 평면도, 입면도 등을 종이에 출력하고 큰 종이에 배치를 한 뒤 사진촬영을 해서 인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하나의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 작업방식으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당시에는 여러 단계의 수작업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그림 1 윤창진 작가가 촬영한 건축패널의 대형 필름

3.2 윤창진 작가의 건축사진 작업 특징

윤창진 작가는 사진촬영 기술에 대한 전문 서적이 부족했던 시기에 일본의 선진 사진촬영기술 서적을 독학으로 연구하면서 새로운 촬영기술을 도입하였다. 특히, 1980-90년대까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사진을 촬영하는 작가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그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의 설계안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촬영에 대한 의견조율이 원활해서 많은 건축설계사무소와 협력이 가능했다.

건축공모전을 위해 제작되는 건축모형의 촬영을 주로 작업하였다. 일반적인 건축사진 작가들이 완공된 건축물의 촬영을 통해 건축가가 상상한 건축물의 특성 혹은 자신들이 발견한 건축물의 특성을 촬영하는 현장 촬영에 집중한다면, 윤창진은 스튜디오 내에서 모형사진 촬영하고, 사진을 편집도구로 사용하여 공모전 제출을 위한 패널 작업 분야에서 독보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현상설계 모형을 촬

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트와 같은 디지털 편집기술이 없던 시절에 사진을 편집도구로 활용하여 현상설계 제출용 패널과 보고서 등을 제작하는 기술을 접목시켰다.

윤창진의 작업은 건축가 조성룡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윤창진 작가는 1980년대 초반부터 건축가 조성룡과 작업을 함께 했으며, 1992년 양재동 287-3 건물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협업을 시작하였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의재미술관, 선유도 공원, 올림픽 기념관 (소마미술관), 이응노 기념관 등 건축가 조성룡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의 건축공모전 출품을 위한 모형사진, 완공 후 사진들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사진보정 프로그램,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의 보급, 현상설계 시 모형 제작 미체출 등 기술적, 제도적 변화로 윤창진 작가가 주로 작업했었던 분야의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건강악화로 인해 사진촬영과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작업활동을 점차 멈추게 될 수 밖에 없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1980-9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던 건축사진작가 윤창진의 작업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윤창진의 작업은 사진을 이용한 매체활용의 변용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기술변화가 일어나던 전화기적 시점에서 다양한 기술적 접합과 확장을 통해 당시 건축계가 필요로한 요구를 충족시켰던 창조적 디자이너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윤정 (1997), 인터뷰 임정의 건축사진가, 빌딩문화, 1997년 1월호, pp. 98-101
2. 김재경 (2012), 사물로서의 집과 그 이미지, 건축도시기행-한국건축가 사진가들, 시공문화사
3. 윤창진 (1992), 건축가와 건축사진작가의 만남, 건축문화, 1992년 11월호, p173-175
4. 이남선 (2015), 건축 아카이브 활용을 위한 건축사진 제작 연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4. 임정의 (2003), 나의 사진여정, 건축 2003년 1월호, p. 38-39